

주간기도정보

2024. 7. 9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국민 정신건강 ‘악화’...“교회가 정서적 돌봄 나서야”

더 불행해진 한국인들...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악화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보다 적극적인 돌봄과 대응이 요구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도맡아야 할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재작년 조사 때보다 더 악화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는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고, 78.8%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에도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에 달했다. 2022년 같은 조사 항목의 63.9%에 비해 9.7%포인트 높아졌다.

항목별로 2022년과 비교하면 심각한 스트레스(36.0%→46.3%),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30.0%→40.2%),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6.4%→18.4%), 자살 생각(8.8%→14.6%) 등이었다. 이 중 스트레스와 우울감, 기타 중독은 2022년도 대비 각각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인구 10만 명당 10.6명)의 2배 이상(25.2명)으로 다년간 1위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65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6만 명 수준이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중증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정부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기로 했다.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 우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전 국민 마음건강을 증진하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교회도 최근 들어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부와 연계해 정신 상담을 제공하거나,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는 데 힘쓰는 분위기다. 일례로 정신장애자 지원단체인 좋은의자와 대한기독교정신과의사회, 한국목회상담협회, 라이프호프는 지난 3월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정신질환 돌봄 지침서 책자를 발간했다. 교회 내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지는 취지에서다.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대표인 조성돈 교수는 “교회 안에서도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위험한 성도들이 적지 않다”며 “생명의 가치를 담보한 교회가 먼저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와 지역이 힘을 합쳐 돌봄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고독사 문제를 비롯해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고립 등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마태복음 5:13-14)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예레미야 17:9-10)

하나님, 주의 은총으로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었지만 도리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여 고통하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어둠과 방황 속에 있는 영혼들이 이때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이니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에게 나아가도록 깨워주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여 알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복음과 기도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을 사랑함으로 고통하는 마지막 때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며,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예수생명의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군사분계선 ‘요새화’에 난관 부닥친 북한군, 사기·의욕 저하

6·25전쟁 영화로 ‘사상적 결의’ 주문…해외유학생 소환교육 재개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요새화하려는 북한 당국의 지시에 지뢰 매설, 방벽 건설에 나선 인민군 부대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면서 급격하게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주민들의 월남 도주(탈북)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분계선 전역을 요새화하려는 지시가 최전연(최전방) 부대들에 내려졌는데, 현재 자재 부족과 작업 도중 사고 등 난관에 한돌이 아니어서 군인들의 사기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전방 인민군 부대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벽을 건설하라는 당국의 지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건설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군인들이 주민의 집을 털어 이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건설 작업에 투입된 군인들은 하루 세 끼 식사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뢰 매설 작업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것도 군인들의 사기 저하와 불안감 증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식통은 “강원도 회양군 최전연(최전방) 부대에 이 같은 폭발 사고로 팔다리를 잃거나 실명하는 일이 있었지만, 부대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대에서는 사고가 또 발생하면 그 대상자에게는 영예군인 칭호와 훈장이 내려질 것이라며 군인들을 독려했지만, 그 누구도 선뜻 작업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평안남도 당위원회가 평안남도 내 모든 시·군들에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상영을 조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도당은 모든 주민이 1시간 30분 정도 되는 영화문헌을 매일 한 편씩 3회 시청하고 그에 대한 느낌글을 작성해서 바쳐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순천시당은 영화 내용에서 ‘전쟁 시기 적들이 우리의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는지’, ‘그에 맞서 우리의 전쟁영웅들이 어떻게 싸워 조국을 사수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볼 것을 짚어줬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웅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조국 수호의 정신을 따라 배워 사상적으로 각성하며 괴뢰한국의 뼈라(대북전단) 공작 및 학생기 방송을 통한 악랄한 회유 및 거짓 전술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사상을 강조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한, 통일부는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러시아 등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5년 만에 집단 소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그간 중단됐던 조처들이 과거 시행했던 대로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해외 체류 유학생의 사상적 이완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양으로 불러 사상교육을 해왔지만, 2020년 초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를 중단했다. 통일부는 과거 외교관과 주재원 교체 시기 해외 근무 엘리트들이 탈북했던 만큼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데일리NK, 연합뉴스 종합).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히브리서 3:14-15)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예레미야 16: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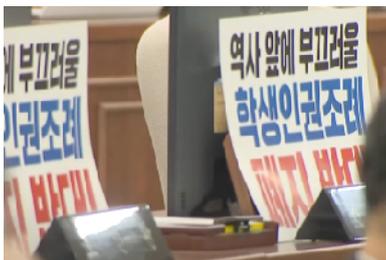
하나님, 월남 도주를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강화하지만, 부족한 공급으로 민간인의 집을 털며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도 대응책 없이 당국에 대한 충성만을 강요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러한 실상에도 주민들뿐 아니라 해외 유학생까지 소환하여 거짓된 사상교육에 전념하는 위정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사탄의 종노릇을 파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에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를 베푸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특별히 고난과 박해가 나날이 더하고 있는 북한 교회를 기억하사 시작할 때에 확신한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통해 북한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보다 강화된 법·제정 멈춰야

서울시 의회 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되자 개악된 학생인권보장법 발의”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원안대로 폐지를 결정했지만, 지난 6월 20일 야당 연합으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731호)이 발의됐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학생인권법은 충남, 서울, 광주광역시,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위법률로 만들어 아예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적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성별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대(안 제8조 제1항) 하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실시하고, 더 나아가 학교 안에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성중립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라 하여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成績), 학습정보 이외에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도 알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동성애 성향을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안 제15조 제2항), 최근 급증하는 교내 마약 사용과 흡기 사용 등 폭력 예방을 약화시켜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9조 제3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선동당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학생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설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유발하고 있는 폐해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했다.

또한, 이 법 어디에도 학생들에게 바른 인권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오�히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언론회는 “국민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를 바라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까지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언론회는 이런 ‘학생인권법’ 제정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인권’이란 빌미로 일방적인 권리만 주게 된다면 상대적인 교사, 학교, 학부모 등은 압박과 고통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헤미야 6:9,16)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4:13-14)

하나님, 잘못된 성 가치관과 인권교육 등으로 다음세대를 위협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상위법률을 제정하려는 악한 시도를 파하여 주소서. 아직 연약하고 우둔하여 진리의 교훈으로 양육 받아야 할 어린 심령에 죄를 조장하는 온갖 교육이 침범하여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을 더욱 들려주소서. 원수의 계속된 방해에도 주님만 주목하며 의지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더욱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 모든 대적이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낙담케 하소서. 치열한 진리의 전쟁 한복판에서 완전한 복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예수군사들로 다음세대를 세우사 요동하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